



한중 FTA시대의 한중 서비스산업 협력

서비스산업연구실 박정수 연구위원

□ 서비스교역 규모의 확대

- 선진국은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성장둔화와 고용불안에 직면하면서 제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 한계를 인식함.
-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자 수요 다양화 등으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시장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함.
 - 특히, 영국의 경우는 90년대 후반 창조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음.
- 또한 교통, IT 발전 등을 통해 물리적, 또는 가상적 네트워크의 확산과 WTO 서비스협상, FTA 협정 등 국제간의 협상 진전 등은 서비스교역을 가능하게 하였음.
 - 그 결과 그 동안 내수시장으로 고려되던 서비스산업에서도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음.
 - ※ 서비스분야의 선도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2000~2012년 동안 서비스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6%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비스수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서비스분야의 교역 확대와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진출

-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협력의 주요 대상국으로 성장함.

- 2012년 기준으로 교역규모는 34배, 인적교류는 53배나 증가하였음.
- 이처럼 경제협력이 확대된 것은 상호간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근감이 주요인이라고 할 것임.

표 1 주요국의 서비스교역 추이(백만 달러, %)

		2000	2005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00~12)
미 국	서비스무역	508,682	678,758	964,487	1,096,166	6.6
	서비스수지	69,600	76,220	150,777	206,818	-
영 국	서비스무역	219,533	370,621	438,509	473,298	6.6
	서비스수지	20,768	44,722	96,190	110,428	-
일 본	서비스무역	184,351	244,573	298,679	322,386	4.8
	서비스수지	-45,860	-23,969	-16,112	-31,207	-

자료 : OECD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 그 동안 서비스교역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양국간 서비스교역의 규모는 292억 달러에 달함.

- 2003~2013년 동안 대중 수출(收入)은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기록, 2013년에는 163억 7,300만 달러에, 대중 수입(支給)도 동기간 13.2%의 연평균 증가율로 2013년 128억 8,3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업종별로 보면, 운송서비스나 여행서비스는 수출비중이, 가공서비스와 여행서비스는 수입비중이 크며, 2003~2013년 동안에는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42.7%)와 가공서비스(25.8%)는 수출증가율이, 가공서비스(25.2%)와 기타 서비스(23.7)는 수입증가율이 높았음.

○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도 확대되고 있음.

- 2001~2012년 동안 서비스산업의 대중 투자는 연평균 증가율 25.2%를 기록하여, 2012년 대중 투자 규모는 5억 5,5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 이는 전체 서비스 해외투자(16.1%)나 중국에의 투자(15.9%)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임.

- 업종별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음.

표 2 한중 양국의 서비스교역 추이(백만 달러, %)

구분	업종	2003	비중	2008	비중	2013	비중	연평균 증가율 (03~13)
대 중 국 수 입	서비스산업	4,079	100.0	13,161	100.0	16,373	100.0	14.9
	- 가공서비스	19	0.5	225	1.7	184	1.1	25.8
	- 운송서비스	2,437	59.7	8,727	66.3	7,922	48.4	12.5
	- 여행서비스	732	17.9	1,451	11.0	4,063	24.8	18.7
	- 보험서비스	16	0.4	19	0.1	31	0.2	6.9
	- 지식재산권 사용료	281	6.9	1,078	8.2	1,505	9.2	18.3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16	0.4	119	0.9	569	3.5	42.7
	- 기타 사업서비스	426	10.5	838	6.4	1,536	9.4	13.7
	- 정부서비스	6	0.1	28	0.2	63	0.4	26.7
	- 기타 서비스	146	3.6	676	5.1	501	3.1	13.1
대 중 국 지 출	서비스산업	3,723	100.0	11,697	100.0	12,883	100.0	13.2
	- 가공서비스	621	16.7	4,099	35.0	5,857	45.5	25.2
	- 운송서비스	801	21.5	3,444	29.4	2,975	23.1	14.0
	- 여행서비스	1,574	42.3	2,104	18.0	2,047	15.9	2.7
	- 보험서비스	5	0.1	13	0.1	20	0.2	14.6
	- 지식재산권 사용료	12	0.3	10	0.1	14	0.1	2.1
	-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28	0.7	353	3.0	71	0.6	10.0
	- 기타 사업서비스	643	17.3	1,412	12.1	1,706	13.2	10.2
	- 정부서비스	24	0.7	109	0.9	64	0.5	10.1
	- 기타 서비스	15	0.4	154	1.3	129	1.0	23.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3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 투자 추이(백만 달러, %)

구분		2001	2003	2007	2010	2012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 투자		47	185	1,259	827	555
비중	전체 서비스 해외투자 대비	3.5	9.8	11.8	9.0	8.1
	전체 대중 투자 대비	7.2	10.2	23.6	22.7	16.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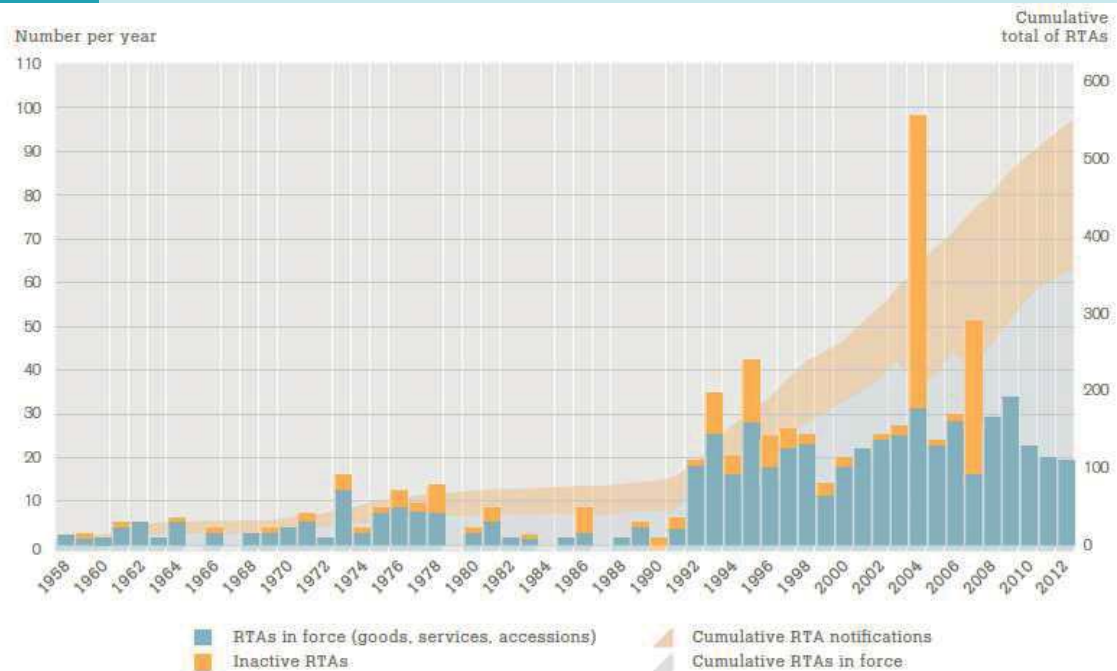
□ FTA 서비스협상 확산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 한편,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

는 지역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

- 2012년 12월 누계기준으로 546건의 지역무역협정이 WTO에 통지되었고, 그 가운데 354건이 발효되었음.
- ※ 2012년 통지된 23건의 지역무역협정에서는 14건의 협정이 서비스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1 지역무역협정의 누적(1949~2012) 통지 및 연도별 발효 현황



자료 : WTO(www.wto.org)

- FTA 협정 내용을 보면, 과거 상품무역의 장벽 완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조항이라든지 투자나 경쟁정책, 지적재산,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특히, FTA 협정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논의 및 협정체결이 확산되는 것은 서비스경제화 진전, 서비스기능의 확대, 서비스교역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임.
- 이러한 FTA 서비스분야 협상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 경로를 보인다고 할 것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 약속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 증대 ⇒ 투자 리스크 감소 ⇒ 서비스분야 교역 및 투자 증대 효과 발생 ⇒ 서비스분야 경쟁력 향상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대

- 법적 안정성 제고 : 자유화 약속 및 범위는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
 - ※ 서비스기업은 국내법이나 각종 조치에 따라 시장진입이나 영업 좌우
- 사업환경의 투명성 향상
 - ※ 법령에 대한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에 따른 사업환경 개선
-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
 - ※ 상품교역량 확대와 그에 따라 부차적으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증가
- 제조업 생산성 제고
 - ※ 서비스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
- 전문직 인력의 상호교류 확대
 - ※ 상호자격 인정이 포함된다면, 전문직 인력의 상호교류에 따른 효과

□ 한중 양국의 FTA 협상 추진 및 타결

-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과 ASEAN, 싱가포르, 인도 등 10건의 FTA 협정을 체결한 한국은 2012년 5월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FTA 협상 추진을 공식화하였음.
- 양국 통상장관 간의 공동성명문에는 단계별 협상방식과 민감분야 보호방식,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역외가공지역 등이 주요 원칙 및 내용으로 포함되었음.
- 한중 양국 간의 FTA 협상 추진은 단계별 협상방식으로,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2단계로 진행되었음.
-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분야 모델리티(분야별 협상지침) 합의를 추진함.

- 이와 관련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은 질의 및 응답 세션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이를 2단계 협상의 기초(가이드라인)로 활용하였음.
- 1단계 협상은 2013년 9월 개최된 제7차 협상에서 마무리되었음.
 ※ 즉, 모든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를 관세가 철폐되는 ‘일반 또는 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하기 위한 상품협상 지침에 합의하였음.

그림 2 한중 FTA 협상 구조

협상개시 선언		1단계 협상 타결
(사전협의)	(1단계 협상)	(2단계 협상)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협상의 구조 합의	민감분야 보호방식 합의	상품 양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전 분야 본격 협상

자료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2012.4)

-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델리티에 기초하여 일괄타결 방식의 전면적 협상을 진행함.
-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2014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제14차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이 공식 발표되었음.
- 이번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품목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음.

표 4 한중 FTA 협상 추진 일지

연월일	주요 내용	장소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국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6.11.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3.22~23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	북경
2010.5.28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	서울
2010.9.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북경
2012.5.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북경
2012.5.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	북경
2013.9.3~5	제7차 협상 개최(1단계 협상 타결)	웨이팡
2014.11.6	제14차 협상 개최	북경
2014.11.10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북경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http://www.fta.go.kr/china/policy/diary.asp>)

○ 특히, 서비스분야의 경우 중국의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장이 한국에 개방되었음.

- 이로 인해 영화와 TV 드라마·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합작기업 설립,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 한중 로펌 합작 등이 가능해졌음.

- 중국 내 법규·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였으나, 미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될 예정임.

□ 서비스산업에서의 한중 협력방향

○ 양국 산업 현황에 기반한 협력의 필요성 대두

- 중국은 12.5 계획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고 있음.

※ 제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서비스부문의 낮은 생

산성이 전체 경제성장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또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가 기대됨.

- 한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가짐.

※ 이와 관련 그 동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산업경쟁력 제고, 또는 글로벌화에의 대응이라는 한중 양국의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경쟁력 제고 경험을, 한국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한국에 중국의 영화시장을 개방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우
수 인력 흡수, 활용함으로써 중국영화의 제작기술을 보다 빠르게 향
상시킬 수 있을 것임.

○ 한중 서비스산업의 협력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 확대와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등의 과제를 모색해 볼 수 있음.

○ 첫째, 정부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양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북경서비스무역교역회에서 한중 서비스무역 포럼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음.

○ 산업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투자환경 개선, 공동의 우대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양국간 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 내국인 대우 등 ‘투자자유화’ 나 ‘투자자 보호’ 조항 개선 등

- 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의 우대 정책 마련

※ 기술, 인력, 자금조달 등의 지원과 명시적/묵시적 규제 완화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국간 공조 강화

※ 저작권 보호 없이는 수익 창출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선순환 효과 상실